의정소식

고양시의회 2개 특별위원회 현장 활동 펼쳐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가 2월 7일과 8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창원시를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신교통수단(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사업노선과 수소트램을 개발 중인 '창원시 현대로템 공장' 현황을 살펴보고 고양시 신교통수단의 도입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오륙도선 도입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수소트램 개발 현황 등을 살펴보고 고양시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2월 11일 서울시기피시설에 대한 정책방향연구를 위해 중랑구에 위치한 '중랑물재생센터'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현재 서울시가 직영하는 오폐수 처리시설로 고양시 대표적 주민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에 비교하여 현대화 및 지하화 된 시민 친화적 시설이다. 특별위원회는 고양시·서울시 간 기피시설 관련 합의사항 이행 시의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현장 방문에는 기피시설특위 소속 의원과 고양시 하수행정과,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하였으며, 시설물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1시간가량 견학하며 서울시운영기피시설에 대한 고양시의 향후 정책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코로나19 방역현장 3곳 격려방문

고양시의회는 2월 10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및 재택치료추진단을 방문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준비한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이길용 의장을 비롯해 이홍규 부의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 최전선에서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길용 의장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의회는 방역 중심에 있는 직원 안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3·1절 맞아 고양독립운동기념탑 참배

고양시의회가 3월 1일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고양독립운동기념탑에서 자유와 독립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참배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길용 의장은 "3·1독립운동에서 호국선열들이 보여줬던 희생과 화합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면서 "민족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힘쓰고 서로를 배려하여 이 난관을 극복해가자"고 말했다.

문예마당

봄다운 봄

글. **김숙진**(일산동구 정발산동)

올해처럼 화사한 봄날이 그립고 기다려졌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활짝 핀 꽃길을 목젖이 다 보이도록 하품하며 걸어보고 싶다. 벤치에 앉아 수다 삼매경에도 빠지고 싶고, 그 누군가가 '프리허그'를 하면 어서 달려가 포옹도 해볼 판이다.

코로나에 너무나 오랫동안 시달렸고, 이에 따른 경제파동에 속이 울렁거리다 못해 머리까지 지끈거리고, 대선까지 겹쳐 눈, 코, 입, 귀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젠 그만 혹사당하고 편하게 숨 쉬고 말하며 먹고 싶다. 몇 달을 대통령 선택하느라 고생한 눈과 귀도 이제는 아름다운 아지랑이 리듬에 풍덩 빠지게 하고 싶다.

어차피 인생은 '표리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불행이 있으니 행복이 빛나는 것이고, 이별이 있으니 만남을 좋아하는 것이고, 죽음이 있으니 삶이 소중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가 안겨준 불행은 엄청난 행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위로하며 얼른 빨리 잘 가라 보내주자. 다신 오지 말라고 못 박아주자.

꽃샘추위가 올해만큼 살벌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같은 영하의 날씨라도 봄 문턱에 들어서는 2월의 영하는 늘 순하고 착했다. 그런데 올해 2월은 동지섣달 영하를 능가하며 보통 야무진 게 아니었다. 아마 깨끗하고 맑고 밝은,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봄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만큼 아름다운 봄을 자랑할 만한 곳이 또 있을까? 정말 올해만큼은 마음껏 멋으로 휘감아 꽃 축제도 하고, 열정을 다해 희망찬 노래들도 부르자. '어서어서 오너라. 찬란한 봄이여~! 이번만큼은 봄다운 봄과 함께 봄이 주는 행복을 만끽하고 싶구나.'

시, 산문, 수필 등 시민의 실력을 맘껏 펼쳐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애독자
참여 바로가기

원고 종류 시, 수필, 에세이, 기행문, 독후감, 사진, 만화 등 제한 없음
원고 분량 A4 용지 이내(시, 만화 등은 적정 분량)
※ 보내주신 작품의 오타, 비문 등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gysosik@naver.com
우편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